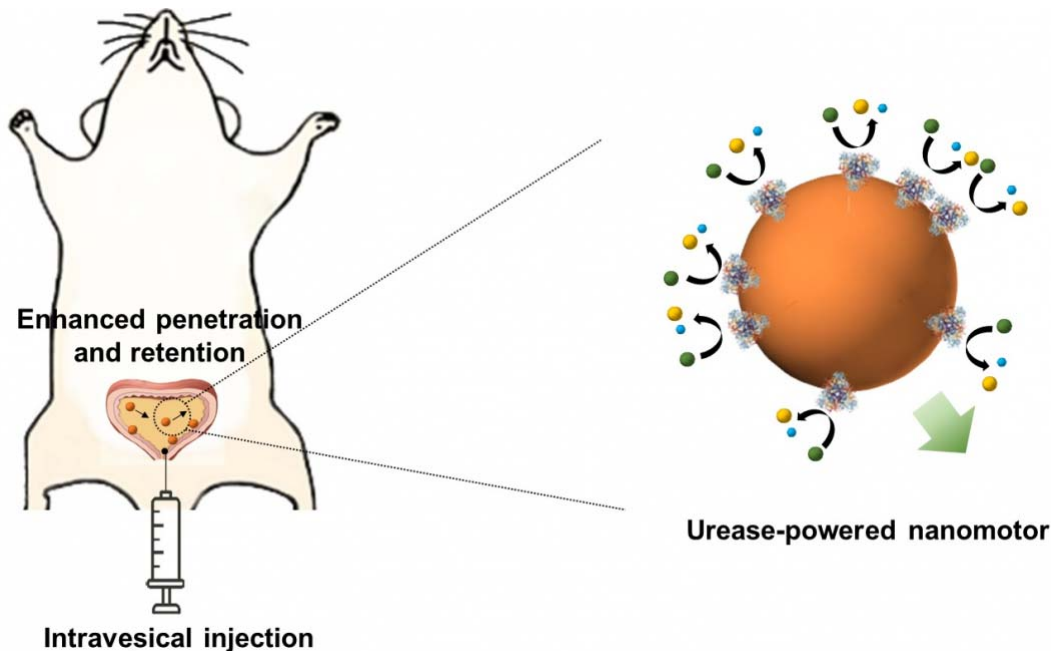


인체 약물 전달효율↑...방광치료 나노로봇 개발

2020-06-18 11:36



포스텍 연구진이 개발한 방광 질환 치료 효율을 높인 '나노모터' 모식도.[포스텍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최근 체내에 장치를 삽입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거나 막는 장치 삽입술이 피임이나 당뇨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체내에서 방광 질환을 치료할수 있는 나노로봇 개발에 성공했다.

포항공대(POSTECH)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인체 내 방광벽 점막층에 깊이 침투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고분자 나노모터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고분자 나노모터는 우리 몸의 생체효소에 의해 구동되며, 다양한 방광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방광암, 과민성 방광, 요실금, 간질성 방광염과 같은 방광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기존 약물 전달체의 경우 방광에서 약물 분자가 수동적으로 확산되며, 일상적인 소변으로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약물전달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방광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생체효소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고분자 나노모터를 개발, 실제 작동 여부를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요소분해효소가 장착된 도파민고분자 나노모터를 방광에 주사하면 요소가 활성 효소에 의해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로 분해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에 의해 나노모터의 추진력이 생긴다.

이렇게 삽입된 나노모터는 배뇨 후에도 방광 벽의 점막층으로 침투가 촉진되어 방광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 나노모터의 이런 특성은 방광 내 약물 전달체로서 다양한 방광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세광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생체친화성 나노모터 기반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 최신호에 게재됐다.

nbgkoo@heraldcorp.com

☰ 인쇄하기

✕ 닫닫기

---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